

# 구역 예배 교안 2024.10.27

1. 신앙고백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2. 찬양과 경배	뒷면의 찬양 또는 준비해 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성령님의 크신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3. 기도	다함께 구역예배와 모임을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를 드립니다.(2번 찬양과 경배와 3번 기도는 연결하여 진행)
4. 말씀	<b>본문: 로마서 9장 24-29절</b> <b>제목: 주의 공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b>
5. 질문과 나눔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나 결단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6. 증거	1) 각 태신자와의 관계맺기 현황과 기도제목 나눔. 2)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시며, 만나게 하시고, 전도가 되도록 기도. 3) 구역 결석자, 구역모임 결석자에 대한 관심과 기도.
7. 치유와 회복의 시간	1) 각자의 긴급하거나 중요한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2) 치유집중기도 - 치유를 위한 집중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먼저 그를 위해 다함께 기도 3) 문제를 맡기며 기도 - 서로 나눈 기도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4) 올 한해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 5) 교회와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 6)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7) 리더가 축복하며 마무리기도
8. 공지사항	
9. 주기도문	

## 주의 공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롬9:24-29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였을 때는 추수감사주일이 말 그대로 농산물을 수확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된 이후에는 추수에 대한 감사보다는 올 한해 우리 생업을 지키시고 삶에 필요한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만사를 그 누구나 그 무엇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원하는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 증거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증거되는 “공홀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공홀히 여겨 구원하시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죄인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주의 공홀에 기초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홀을 입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홀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저들의 조상이고, 저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저들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땅에 오신 구주 하나님의 독생자를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공홀의 그릇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공홀을 베푸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공홀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공홀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는 사실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임한 주의 공홀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에게 주의 공홀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저들을 섬기고 교회나 소그룹으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혹시 오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아직 믿지 않아 낙심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때에 공홀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번 감사주일에 허물과 죄로 죽어 소망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공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자주 넘어서는 우리에게 여전하신 주의 공홀과 이 환란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공홀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홀에 빛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공홀히 여기고 복음을 전함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 589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통일 308)

보통으로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치며  
 2. 추수할 때 많은 일에서 황금물결 뒤치며  
 3. 먼 동행은 많은 일에서 황금물결 뒤치며  
 4. 거 뒤는 많은 일에서 황금물결 뒤치며

이 들에 태양 빛이 향기진 동하도 다  
 열심 있는 자는 태양 빛이 향기진 동하도 다  
 황혼이 가물 때 일과 함께 향기진 동하도 다  
 주가 풀을 자라게 하리니 향기진 동하도 다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 날 구원하신 주 감사

J. A. Hultman

문정선 역

1.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 심 감사
2.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3.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헤쳐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사랑 건넌 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해  
 측량 못 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해  
 내일 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해

# 구역 모임 교안 2024.10.27

1. 아이스 브레이크	<p>*눈치게임: 모인 사람의 숫자만큼(예:5명이 모였으면 4번까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일어나거나 번호를 외치며 손뼉을 치는 게임입니다.</p> <p>*별칭 해당자: 마지막까지 번호를 외치지 못하거나 일어나지 못한 사람, 동시에 같이 외치거나 함께 일어나는 사람</p>
2.찬양과 경배	<p>뒷면의 찬양 또는 준비해 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성령님의 크신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p>
3.기도 (통성으로)	<p>다함께 구역예배와 모임을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인도가 마무리 기도를 드립니다. (2번 찬양과 경배와 3번 기도는 연결하여 진행)</p>
4.은혜의 나눔	<p>한 주 동안 은혜 받은 내용이나 응답받은 기도제목에 대해서 구역 식구들 앞에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p>
5.말씀의 나눔	<p><b>본문: 로마서 9장 24-29절</b> <b>제목: 주의 공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b></p>
6.질문과 나눔	<p>1) 주의 공홀을 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공홀히 여기신다는 사실이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나누어 봅시다. 3)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은 것과 새롭게 결단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p>
7.증거	<p>1) 각 태신자와의 관계맺기 현황과 기도제목 나눔. 2)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시며, 만나게 하시고, 전도가 되도록 기도. 3) 구역 결석자, 구역모임 결석자에 대한 관심과 기도.</p>
8.치유와 회복의 시간	<p>1) 각자의 긴급하거나 중요한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2) 치유집중기도: 치유를 위한 집중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먼저 그를 위해 다함께 기도 3) 문제를 맡기며 : 서로 나눔 기도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4) 올 한해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 5) 교회와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 6)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7) 리더가 축복하며 마무리기도</p>
9.광고 및 주기도문	

## 주의 공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롬9:24-29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였을 때는 추수감사주일이 말 그대로 농산물을 수확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된 이후에는 추수에 대한 감사보다는 올 한해 우리 생업을 지키시고 삶에 필요한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만사를 그 누구나 그 무엇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원하는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 증거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증거되는 “공홀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공홀히 여겨 구원하시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죄인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주의 공홀에 기초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홀을 입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홀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저들의 조상이고, 저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저들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땅에 오신 구주 하나님의 독생자를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공홀의 그릇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공홀을 베푸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공홀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공홀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는 사실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임한 주의 공홀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에게 주의 공홀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저들을 섬기고 교회나 소그룹으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혹시 오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아직 믿지 않아 낙심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때에 공홀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번 감사주일에 허물과 죄로 죽어 소망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공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하여 자주 넘어서는 우리에게 여전하신 주의 공홀과 이 환란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공홀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홀에 빛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공홀히 여기고 복음을 전함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 589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통일 308)

보통으로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치며  
 2. 추수할 때 인애로 인애로  
 3. 먼 동행 들에 인애로 인애로  
 4. 거 뒤 들에 인애로 인애로

어디든 지는 태양빛 에 향기진 동하도  
 열심있는 지는 태양빛 에 향기진 동하도  
 황혼가 베풀 잔치 자 리 추우 리 참 여 하 겠네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지 나가기전에 이서추수합시다 아멘

# 날 구원하신 주 감사

J. A. Hultman

문정선 역

1.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2.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3.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향기론 봄철에 감사 외론 가을날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해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해  
 내일 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해